

바람의 항구 모슬포

제주도 남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항구인 모슬포항은 황금어장을 향해 나가려는 배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방어가 유명한 모슬포항은 때때로 심한 바람이 불어와 많은 배들이 대피하는 곳이다. 바람의 항구 모슬포를 만나보자.



하모항구로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770-28 ~ 대정읍 하모리 938-14(약 0.8km)

상모로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811-1 ~ 대정읍 하모리 824-1(약 3.3km)

하모중양로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389-4 ~ 대정읍 하모리 937-9(약 0.9km)

신영로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998-1 ~ 대정읍 하모리 818-3(약 1.3km)

상모대서로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38 ~ 대정읍 상모리 3732-2(약 0.7km)

하모상가로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81-1 ~ 대정읍 하모리 849-14(약 0.5km)

하모항구로 | 모슬포항

하모항구로는 하모리에 있는 모슬포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모슬포항은 모슬봉과 가시악이 항구를 등지고 있는 천혜의 항구이다. 이때문에 조업이 어려울 정도로 강풍이 부는 때에는 가깝게는 제주 연안에서, 멀게는 동중국해에서 작업하는 어선들이 모두 모여들어 피난항의 역할을 한다. 모슬포항에서는 정박해 있는 어선뿐만 아니라 방파제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횃집, 활어 직판장 등을 볼 수 있어 전형적인 어촌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모슬포항

해마다 11월이 되면 이곳에서는 최남단 방어축제가 열린다. 방어 맨손잡기와 같은 각종 체험행사와 방어회 무료시식 등 부대행사가 이루어지고 행사기간 동안 향토음식점이나 지역특산물 판매 등이 상설행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즐길 거리가 많다. 가을 하늬바람과 함께 축제분위기로 가득 찬 모슬포항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상모로 / 하모중앙로 | 상모리와 하모리

모슬포하면 항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마을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모슬포의 대표적인 두 마을은 상모리와 하모리이다. 두 마을의 중심지를 각각 지나는 길이 **상모로**와 **하모중앙로**이다. **상모로**는 상모리를 지나 옆 마을인 사계리까지 연결된 길이고, **하모중앙로**는 하모리의 중심지를 통과한 후 일주서로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모슬포는 예로부터 모래가 많은 포구라고 하여 모래를 이르는 제주어인 ‘모살’에서 따와 ‘모살개’로 불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이름은 오늘날 마을이 형성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모살개를 중심으로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게 되었다. 모살개의 위쪽에 있는 마을은 윗모살개, 아랫마을은 알모살개로 불리다가 이후 마을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각각 지금의 상모리와 하모리로 불리게 되었다.

신영로 | 신영물

제주는 예로부터 물이 귀해 해안가의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만들어졌다. 하모리 교차로에서 동서로 뻗어있는 **신영로**는 이러한 용천수 중 하나인 신영물의 이름을 반영한 것이다. 신영물은 모슬포항으로 들어가는 입구 서쪽에 있다. 상모리와 하모리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은 이곳에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해결했다고 한다. 신영물의 이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오래 전부터 신령수(神靈水)라 일컬었다고 한다. 그래서 신영물 주변 마을을 영수동(靈水洞)이라 불렀다.

상모대서로 | 강병대 교회



강병대 교회

상모대서로는 상모리의 대서동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상모대서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하면 강병대 교회가 나온다. 이 교회는 6·25전쟁 때 훈련을 받던 병사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주기 위한 교회 역할을 담당했다. 강병대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모슬포 예비군훈련장은 6·25전쟁 때 훈련병들을 모아 교육시키던 육군훈련소였다. 지금으로 말하면 논산 훈련소와 그 역할이 같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본일초가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바로 전쟁에 투입되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언제 전쟁터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훈련병들은 강병대 교회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하모상가로 | 모슬포 시계탑

모슬포 지역의 상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의미인 **하모상가로**는 하모리의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거리를 지난다. **하모상가로**와 하모중앙로와 만나는 교차로는 과거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던 자리로 ‘차부 사거리’라고 부르는 곳이다. 지금은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대신 차부 사거리를 중심으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모상가로 동쪽 끝에서 상모로, 신영로와 만나는 교차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시계탑 사거리’라 불

리는 곳이다. 모슬포 중앙시장 앞을 지키던 시계탑은 1980년대 도로 확장으로 철거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 시계탑이라 불리며 주변 상권의 중심지가 되었고, 결국 2002년 다시 시계탑을 복원해서 모슬포의 명물로 다시 태어났다.



모슬포 시계탑

